

# 봄기운 물씬 4월 도내 체육행사 풍성

###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 남원코리아오픈플러너대회 등 다채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전북 곳곳에서 크고작은 체육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4월을 맞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등 다채로운 체육대회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우선 1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2019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14일 군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지난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 코스'로 인증 받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다.

올해도 국내·외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동호인 등이 풀코스를 비롯해 하프, 10km, 5km 등 총 4개의 종목에 참여한다. 또한 남원에서는 '2019 남원코리아오픈국제플러너대회'가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로 스피드 트랙과 로드, 슬라럼, 인라인 하키 등 4개 종목이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는 호주와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세계 16개국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제13회 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18~20일)와 제23회 초등테니스연맹회장기대회(27~5월2일) 등 전국규모 대회도 각각 전주와 순창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전북학생골프선수권대회(16~17일)와 도지사배 볼링대회(19~21일), 제5회 전라북도지사기빙상대회(27일)도 군산과 익산, 전주 일원에서 각각 열린다.



전북체육회 전경.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봄기운이 물씬 나는 4월에도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도내에서 펼쳐진다"며,

"모든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선생님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글도 쓰고'

### 전북교육청,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426팀 선정 · 지원

전북교육청이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 5억9,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300팀, 학생 독서 동아리 94팀, 고등학생 인문학 동아리 32팀 등을 지원하는 것.

철저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426개의 동아리들은 1년 동안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으로 토

론, 글쓰기, 또는 심화 연구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펼치거나 인문 기행, 독서 캠프 등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을 맞보게 된다.

2012년 첫 지원 이래 가장 많은 팀을 지원하게 된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가 10명 내외의 학생들과 선생님 1~2명이 주기적으로 만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며 독서의 재미에

빠지게 하는 입문 버전이라면, 깊이 있는 독서를 연구와 글쓰기로 확장시켜 한 권의 책을 완성해 내는 책 쓰기 동아리나 작가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질문을 생성하고 사고를 확장해 내는 체험형 프로그램인 인문학 캠프로 이어지는 고등학생 인문학 동아리는 고급 버전이라 할 만하다.

이런 차별성 때문에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에는 팀당 119만원, 책 쓰기 동아리와 고등학생 인문학 동아리에는 팀당 200만원이 지원되고 그 활동을 견인할 교사독서교육연구회 37팀에 5,900만원의 예산이 별도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나 함께 독서 경험을 나누는 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독서교육이다"면서, "독서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선생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크게 났을 정도로 그 효과와 인기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이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은 물론 지도교사 워크숍, 학생기자 출간기념회, 고등학생 인문학캠프, 콘서트 등 후속 행사를 통해 그 운영 성과를 도내 각급학교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인성과 창의성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

### 전북교육청, 12일까지 영재 · 발명-메이커교육 동아리 공개 모집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영재·발명과 메이커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2일까지 '2019 학년도 영재·발명 및 메이커교육 동아리'를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교사와 함께 하는 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발명 및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메이커교육 교원 연구 동아리를 지원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결합을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동아리의 경우 영재·발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5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동아리 운영계획서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꿈틀움 영재학생 동아리'와 '사제

동행 발명동아리' 분야에 각각 20개팀(초10, 중5, 고5)을 선정해 팀별로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리는 각급 학교(영재동아리:영재교육원 소속 학급 가능)에서 직접 운영하며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해 활동하게 된다.

메이커교육 동아리인 '미래창작공방 연구지원단'은 교사와 전문가 1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활동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5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팀당 2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된

다. 선정된 동아리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동아리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민남과 나눔의 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11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영재·발명, 메이커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국가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미래창작공방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에 관심있는 학생과 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정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받는다

정부가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를 받는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지난 5일 전담 테스트포스

## 정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받는다

(TF) 1차 회의를 열고 예방과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별신고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신고전화(02-3479-7760)로 가능

하다. 과거 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즉각 절차를 개시한다.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봄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를 시행한다. /뉴시스

##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 사서 실무 교육 실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관내 학교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사서(학교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하는 학부모를 칭함)를 대상으로 '2019 학교도서관 학부모사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학부모사서의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 3시간씩 총 6차시로 3주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학교도서관 운영 ▲도서관 자료 관리방법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활용 등이다.

교육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평소 관련 내용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우리 봉사자끼리만 어렵직작으로



도서관 업무를 지원해오던 차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업무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튜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 "교사 유튜브 활동 원칙적 허용"

###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유튜브 관심 표명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해당... 영리행위는 안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학생들과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가 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8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유튜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헌법상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자 관련 매뉴얼과 복무지침을 만들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승환 교육감은 8년간 8억8천만원 횡령 행정실 직원 재판 결과 기사를 인용하면서, 철저한 감시와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실 직원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빼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철저하게 파악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 가운데 '학교생활 행복도' 결과에 주목하며, "학생들의 학생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